

## 중국어 사동 구문 ‘讓’·‘叫’와 공손표현\*

吳 眩 娃\*\*

<目次>

I. 들어가기	IV. ‘讓’과 ‘叫’의 사용 규칙
II.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V. 사용 규칙의 다양성
III. ‘讓’과 ‘叫’의 사동의미	VI. 나오기

### I. 들어가기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에서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讓’·‘叫’ 구문과 중국어 공손표현(禮貌語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공손’ 관점에서의 ‘讓’·‘叫’ 적용 규칙 및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어 사동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아울러 주로 의미론과 통사론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sup>1)</sup> 기존 연구 가운데 사동문과 관련하여 苗延昌(1990)은 “상·하 구분에 따라 讓과 叫의 적용이 달라진다.”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공손성(또는 공손표현)과 관련된 견해라는 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A00590).

\*\* 蔚山大學校 中國語中國學科 講師

1) 주요 논문은 宛新政(2005), <試論現代漢語使動句的句法、語義和語用特征>; 張豫峰(2007), <關於現代漢語致使態的思考>; 曹冬雪(2009), <讓字句的語義特征>; 杓연창(1990), <使動意義的一些同義詞對比分析>; 김윤경(1997), <現代漢語使動句研究>; 박미정(2001), <현대 중국어의 사동 구문 연구>; 김윤정(2008), <현대중국어 사동구문 비교 분석 연구> 등이다.

에 의의가 있다.<sup>2)</sup>

중국어 공손표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휘 차원에서의 논의가 대부분이고, 문장 범주의 연구<sup>3)</sup>에서도 사동문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사동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사와 개별 단어의 의미 분석에 치우쳐왔다. 그러나 실제 화용상에서는 통사적 또는 의미적 측면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들 들어보자.

(1) 媽媽, 我叫你來, 你爲什麼不來?

엄마, 내가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와?

위 예문은 매체를 통해서 혹은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동 표현으로, 화자인 ‘我(아이)’는 청자인 ‘你(엄마)’에게 ‘叫’를 사용하여 사동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명령(命令)」과 「지시(使喚)」의 의미가 있는<sup>4)</sup> ‘叫’를윗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sup>5)</sup> 그렇다면 ‘讓’이 쓰인 사동 구문의 어기(語氣)는 어떠한가? 아래 예문과 비교해보자.

- 
- 2) 이 논문에서는 사역동사 「使」, 「讓」, 「叫」, 「教」, 「令」의 용법상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이 중 ‘命令’이나 ‘指使’를 나타내는 「讓」과 「叫」는 모두 같은 개념을 표시하나, 이들의 적용 대상은 上下 구분이 있다. 「讓」은 上對下, 下對上, 대등한 쌍방에 적용할 수 있으나 「叫」는 반드시 上對下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공손성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견해이나 담화 층위의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 3) 이와 관련된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陳松岑(1989), 《礼貌語言》; 張樹錚(1991), 《淺談禮貌語言》; 김현철·김민영(2009), <현대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김정은(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 오현주(2010), <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문장 범주 완곡 표현 방식> 등이 있다.
- 4) ‘叫’와 ‘讓’의 사동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5) 이 예문에서 화자와 청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친근도’(친밀도 혹은 유대관계)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1) 媽媽, 我讓你來, 你爲什麼不來?

위의 (1)'는 (1)의 '叫'구문에 비해 어기가 한층 완곡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공손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경한 명령어기를 지닌 '叫'를 뒷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들도 흔히 범할 수 있는 화용상의 오류에 속한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역시 사동문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 숙지되었다 하더라도 공손성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오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용상의 오류는 문법이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 상응하는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은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社交) 화용상'의 오류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며, 실제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공손규칙(禮貌規則)을 이해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sup>6)</sup>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손성 관점에서 대화자 상호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讓'·'叫'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적용 규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叫'·'讓' 사동구문과 공손표현과의 관계이다. 이 유형의 사동문은 '使자 구문', 즉 「使, 命, 讓, 叫」 등으로 구성된 사동문을 말한다. 이 중 [命使]과 [指使]의 의미를 나타내고 구어(口語)에 많이 쓰이는 사동 구문인 '讓구문'과 '叫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sup>7)</sup>, '叫'

6) 何自然·陳新仁, 《當代語用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2, 168-170쪽 참조.

7) 현대 중국어에서 '使'와 '命'은 일상회화(口語)보다는 서면어(書面語)에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사동의미에 있어서도 '命使'와 '指使'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거나 혹은 운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공손표현의 관점에서 논의하기에는

· ‘讓’사동 구문과 공손표현의 관계, ‘叫’·‘讓’의 사동의미, 상호 관계에 따른 유형별 적용 양상, 가변적인 적용 양상 및 그 요인 등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손성의 관점에서 ‘叫’·‘讓’의 사동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의미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손 정도를 비교한다.

둘째, 분석 텍스트<sup>8)</sup>를 대상으로 ‘叫’와 ‘讓’의 용례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다. ‘叫’와 ‘讓’이 사동문으로 쓰인 문장과 이를 포함하는 담화를 추출한 후 용례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공손성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중국어 공손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실제 화용상을 보면 어휘에서 문장범주, 담화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형식들이 공손표현으로 사용된다.<sup>9)</sup> 공손한 표현은 대화자 상호간의 관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므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화용상에서 대화참여자 간의 관계, 즉 화자와 청자,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정도에 따라 ‘叫’와 ‘讓’의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사용 규칙에 위배되는 변이 양상을 살펴본 후 화용, 사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본 논문은 라오서(老舍)와 차오위(曹禺)의 문학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상호간의 대화 위주인 희곡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조사·분석하였다. 실제 조사나 담화분석자료 등을 통한 고찰이 아닌 특정 작가의 제한된 문학작품을 통해 고찰한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담화 층위에서 인물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 및 그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9)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어휘 범주: 경어(敬語 혹은 敬辭)와 겸양어(謙辭) 등
- ② 문장 범주: 의문문과 조건문을 통한 공손표현, ‘부담 줄이기 의미’ 부사 활용 등

회적 맥락에서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叫’, ‘讓’ 사동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본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은 논외로 함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① a. “現在教我給你出主意?” 曹先生問。(《駱駝祥子》)  
 “지금 나더러 당신에게 좋은 생각을 내라는 것인가?” 라고 조선생이 물었다.
- b. 太太, 不是您吩咐過, 叫我回去睡麼?(《雷雨》)  
 마님, 마님께서 저더러 집에 가서 자도록 분부하지 않으셨어요?
- c. 老總們, 讓我哪兒找現洋去呢?(《茶館》)  
 노형들, 나더러 어디 가서 현양을 구하란 말이요?
- d. 媽, 您讓我一個人在屋子裏歇著吧。(《雷雨》)  
 엄마, 저 혼자 방에서 쉬게 해 주세요.

예문 (1a)-(1d)는 모두 제1인칭 ‘我’가 피사동주로 쓰인 구문이다. 겸양(自謙)<sup>10)</sup>기능도 공손표현의 한 유형이긴 하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誰叫你送錢來了?(《雷雨》)  
 누가 당신더러 돈을 가지고 오랬어요?

10)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공손표현의 한 유형이다. 어휘 범주에 속하는 겸양어(謙辭) 역시 경어(敬辭)와 함께 ‘공손어휘’에 속한다. 특히 예(1d)는 요청 화행에서 「내가 ~하도록 해주시오」라는 허락을 구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대 의미를 나타낸다. 일반 청유문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기의 공손함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 a. 讓我仔細想想。            내가 자세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a'. 我仔細想想。            내가 자세히 생각해볼게요.

‘叫’, ‘讓’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讓我~」구문의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손성 측면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讓我~」구문의 ‘自謙’ 기능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③ 大家都讓一個四十多歲的高個子在前頭走。(《駱駝祥子》)  
모두들 40세 전후의 키다리 인력거꾼에게 앞에서 가라고 했다.
- ④ 我絕對不願叫任何人說他們一點閑話的。(《雷雨》)  
그 누구라도 내가 교육시킨 내 아이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하는 것을 원치 않아.
- ⑤ 送給你的衣服, 我回頭叫人送到你那裏去。(《雷雨》)  
네 물건들은 나중에 사람을 시켜 보내도록 하마.

공손한 표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대화참여자의 상호 관계이다. 예문 ②, ③은 각각 ‘誰’와 ‘大家’를 사동주로, 예 ④, ⑤는 불특정인을 나타내는 ‘任何人’과 ‘人’을 피사동주로 취하고 있어 사동주와 피사동주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Ⅲ. ‘讓’과 ‘叫’의 사동의미

사동 의미를 나타내는 ‘叫’구문과 ‘讓’구문은 「사동자(支使者)+叫/讓+피사동자(被使者)+피사동행위(被使事件)」의 형식을 취하며, 사동자가 피사동자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sup>11)</sup> 이와 같이 양자는 통사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11) 박미정(2001)은 <현대 중국어의 사동 구문 연구>에서 “사동이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태(態)이다.”라고 사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광의의 사동의미로 본다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게 하는”을 협의의 사동의미로 볼 수 있다. 본고는 통사나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상호관계에 따라 ‘讓’과 ‘叫’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게 하는” 이라는 협의의 사동 정의를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支使’ 의미의 구문만을 본고의 논의 범주로 삼고자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叫’와 ‘讓’은 공통적으로 「~하게 하다/시키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叫：使，命令；讓：表示指使、容許或聽任。』（《現代漢語詞典》）

『叫：致使。必帶兼語。讓：致使；容許，聽任。必帶兼語。』

（《現代漢語八百詞》）

《現代漢語詞典》에서는 의미만 제시할 뿐 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한편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개사로서의 용법 차이는 지적하고 있으나<sup>12)</sup> 사동 구문에 있어서의 용법 차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叫’와 ‘讓’ 모두 「致使(~하게 하다/~하도록 만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支使(시키다/지시하다)」의 사동 의미를 살펴보면 양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叫’는 【命令(명령하다)】의 의미가 있고, ‘讓’은 【容許(허락하다)】와 【聽任(마음대로 하게 하다/좋을 대로 내맡기다)】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지시하는 ‘支使’ 구문에서 지시 또는 명령어기(語氣)에 강약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나 어기(語氣) 차이로 인해 실제 화용상에서 그것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② 到了左家，曹先生叫祥子把車拉進去，趕緊關上門。（《駱駝祥子》）

쭈어선생댁에 이르자, 차오선생은 시양쯔에게 인력거를 끌고 들어가서 급히 문을 걸어 닫게 했다.

③ 讓老太太想想，想想！（《茶館》）

할머니께 생각할 시간을 좀 줘시다!

예문②, ③을 보면 적용상에 있어서 대화참여자 상호 간의 관계에 영향

12)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462-463쪽 참조.

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하(上下) 관계에 따라 예②와 같이 ‘叫’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③과 같이 ‘讓’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하’ 관계는 주로 ‘권세(權勢)’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세’는 대화 참여자 상호 간의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이에 의해 결정된다.<sup>13)</sup> 다시 말해 ‘叫’와 ‘讓’의 적용에 있어 ‘권세(權勢)’ 요인, 즉 ‘나이’와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혹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담화 맥락에서 그들 상호간의 권세 관계에 따라 ‘叫’와 ‘讓’의 선택이 달라진다.

#### IV. ‘讓’과 ‘叫’의 사용 규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참여자 상호간의 권세 정도에 따라 ‘叫’와 ‘讓’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권세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사회적 지위와 연령이다. 이에 근거하여 ‘상하 관계’와 ‘동등 관계’로 나누어 ‘叫’와 ‘讓’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상하관계

사회적 지위와 연령 면에서 격차가 있는, 즉 상위자와 하위자, 연장자와 연하자 간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 아래 예를 통해 알아보자.

- ④ “老大!”母親從炕席下摸出三五個栗子來, 給了小順兒, 叫他出去玩。  
(《四世同堂》)

13) 권세 관계는 사회적 지위의 거리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계급 사회인 회사 내에서 부하직원과 상사 간에는 권세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正權勢’라 한다. 이와 반대로 대화 참여자 간에 등급 차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負權勢’ 관계 즉, 동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劉豔春, 《語言交際概論》, 北京大學出版社, 2007, 50-55쪽 참조.

“큰애야!” 어머니는 아랫목 방석 밑에서 밤 몇 개를 꺼내 (손자) 순에게 주고는 나가 놀라고 했다.

- ⑤ 王利發：別再問我什麼，我心裏亂！一輩子沒這麼亂過！媳婦，你先賠大嬸走，我叫老大追你們！（《茶館》）

나한테 자꾸 묻지 마라, 머리가 복잡하구나! 평생 이렇게 복잡한 건 처음이다! 애야, 네가 먼저 아주머니 모시고 가거라, 애비보고 쫓아가라고 할 테니!

예문④, ⑤는 한 가족 내에서 종적(수직) 관계에 있는 인물 간의 담화 내용이다. 예④는 사동주가 할머니이고, 피사동주는 손자이며, 예⑤는 사동주가 아버지이고, 피사동주는 아들이다.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叫’를 사용하여 대화자 상호간 세력의 강약과 불평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⑥ 比如叫他給小孩兒去買丸藥，她必多給他一毛錢，叫他坐車去，雖然明知道他比誰也跑的快。（《駱駝祥子》）

예를 들면, 부인이 시양쯔에게 아이 먹일 환약을 사오라고 시킬 때, 그에게 차타고 갔다 오라고 반드시 10전을 더 준다. 시양쯔가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달린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 ⑦ 夏太太跳著腳兒罵了一陣，教楊媽馬上卷鋪蓋滾蛋。（《駱駝祥子》）

하씨 부인은 길길이 뛰면서 미친 듯이 욕을 해대고는 양마를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

- ⑧ 周樸園：（向四鳳）叫你給太太煎的藥呢？

（사봉이에게）너 마님 약 달여 드렸느냐?

魯四鳳：煎好了。（《雷雨》）

다 달였습니다.

위의 예문 ⑥은 인력거꾼 상자(祥子)와 그가 인력거를 전세내고 있는 집의 안주인인 양씨부인과의 담화이다. 그들 상호 간에는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권세 관계가 형성되어 상위자인 양씨부인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祥子’에게 ‘叫’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한다. 예⑦을 보면, 피

사동주인 양마(楊媽)는 하씨부인(夏太太) 집의 식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동주인 하씨부인(夏太太)과 피사동주 양마(楊媽) 간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상하관계가 형성된다. 강압적인 지시 의미가 있는 ‘教’<sup>14)</sup>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위가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예⑨은 집주인 ‘周樸園’과 하인 ‘四鳳’과의 대화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권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권세 측면에서 상위자인 ‘周樸園’은 하위자인 ‘四鳳’에게 명령의 어기가 강한 ‘叫’를 사용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또는 연장자는 연하자에게 ‘叫’를 사용하여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도록 한다. ‘讓’에 비해 한층 더 강한 명령·지시 의미가 있는 ‘叫’를 사용함으로써 상위자 또는 연장자의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연장자는 연하자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叫’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하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叫’를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⑨ 康順子: 我要是不跟你去呢?

내가 가지 않겠다면?

龐四奶奶: 啊? 不去? (要翻臉)

어? 가지 않겠다고? (표정을 바꾸려 한다.)

小唐鐵嘴: 讓老太太想想, 想想! (《茶館》)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위의 예문에서 화자인 ‘小唐鐵嘴’는 연장자인 ‘老太太’에게 ‘讓’을 사용

14) “教”現在常寫作“叫”。丁聲樹,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2004, 100 쪽 참조. ‘教’는 ‘叫’, ‘讓’과 기본적으로 의미가 같고, 명령의 의미가 강하다는 특징에 있어서는 ‘叫’와 같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教’를 ‘叫’와 동일 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하였다. 이는 연령상의 상하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의 상하관계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후가 되고자 하는 추악한 야심을 지닌 인물인 ‘방씨 넷째마님(龐四奶奶)’을 극진히 모시는 ‘小唐鐵嘴’는 극중에서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龐四奶奶’가 태후마마로 모시고자 하는 ‘康順子’에게 ‘讓’을 사용한 것은 권세 및 지위 측면의 상하관계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 ⑩ 魯大海: 你別理他。讓他(父親)說。(《雷雨》)  
상관 말고 그냥 얘기하게 놔둬.
- ⑪ 魯大海: 你叫他們把門開開, 讓媽進來, 領她在房裏避一避雨。(《雷雨》)  
문을 열라고 해서 어머니를 들어오시게 해요. 비를 피하셔야 해요.
- ⑫ 方珍珠: 等爸爸回來我就去, 讓他看看我拿著書, 紙本, 由這兒出去, 不是去賣藝, 是去上學!(《方珍珠》)  
아버지가 오시면 갈래요. 내가 책과 공책을 들고 지금 나가는 것이 노래를 팔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해요.

위 예문(⑩~⑫)는 피사동주가 모두 화자의 부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상하관계가 형성된다. 상위자인 부모에게 ‘叫’에 비해 완곡한 사동의미를 가지는 ‘讓’을 사용함으로써 공손성을 표현할 수 있다.

- ⑬ 瘋子: 王大媽, 丁四嫂, 說來說去都是我不好!  
아주머니, 형수! 다 제 잘못입니다.  
.....  
娘子: 別緊自傷心啦!  
자꾸 그렇게 상심만 말아요.  
二春: 讓他說說, 心裏好痛快點呀!(《龍須溝》)  
마음이라도 후련하게 실컷 말이라도 하게 해요.

위 예문⑬은 ‘용수구가’에 모여 사는 네 가구 사람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다룬 희곡 《龍須溝》 중 삼륜차를 끄는 ‘丁四’의 부인, 부인에게 의존해 사는 무능한 ‘程瘋子’와 그의 아내 ‘娘子’, 품바느질을 하며 살아가는 ‘王大媽’와 그녀의 딸 ‘二春’ 간의 대화 내용이다. ‘二春’은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瘋子’에게 ‘讓’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상하관계에 있어서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讓’을 선택하여 사동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공손한 표현이다.

## 2. 동등 관계

앞서 권세의 상하관계에 따라 ‘叫’와 ‘讓’의 사용이 달라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권세 면에서 대등한 상호간에는 어떤 적용을 하는가?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⑭ 魯貴: (問魯媽)剛才我叫你買茶葉, 你爲什麼不買?  
 (노씨댁에게) 방금 차를 사라고 했는데 왜 사지 않았소?  
 魯侍萍: 沒有閑錢。(《雷雨》)  
 그런 쓸데없는 돈은 없어요.
- ⑮ 周樸園: (嚴肅地)蘩漪, 你走, 我叫你上樓去!  
 (엄숙하게) 여보! 당신이 가요. 이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잖소!  
 周蘩漪: (輕蔑地)不, 我不願意。我告訴你, (暴躁地)我不願意。(《雷雨》)  
 (경멸하듯) 아니요, 진 싫어요. 분명히 말하겠는데 (거칠게) 싫어요!
- ⑯ 在這裏, 她留了個心眼: 原本想買兩輛車, 一輛讓祥子自拉, 一輛賃出去。現在她改了主意, 只買一輛, 教祥子去拉; 其餘的錢還是在自己手中拿著。(《駱駝祥子》)  
 그녀는 제 앞가림을 잊지 않았다. 애초에는 두 대를 사서 한 대는 상자가 끌고 한 대는 임대를 줄 생각이었으나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한 대만 사서 상자가 끌게 하고 남은 돈은 손에 쥐고 있자는 것이었다.

위의 예문(⑭~⑯)은 모두 부부 사이의 담화 내용으로, 예⑭, ⑮는 모두 ‘叫’를 사용하였다. 반면, 예문⑯에서는 ‘虎妞’가 자신의 남편인 ‘祥子’에게 ‘讓’과 ‘叫’를 사용하였다. 부부는 권세 면에서 동등한 관계이며, 거리감이 없는 매우 친밀한 사이이다. 따라서 부부 상호간에는 ‘叫’를 쓰기도 하고, ‘讓’을 쓰기도 한다.

- ⑰ 周冲: 不, 哥哥, 母親說好久不見你。你不願意一齊坐一坐, 談談麼?  
아니야. 형, 어머니가 형을 오랫동안 못 봤다고 하셨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라도 나누지 않겠어?  
周蘩漪: 你看, 你讓哥哥歇一歇, 他願意一個人坐著的。(《雷雨》)  
아니다, 형 좀 쉬라고 하렴. 혼자 있고 싶은 모양이다.  
周萍: (有些煩)那也不見得, 我總怕父親回來, 您很忙, 所以—  
(귀찮은 듯)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님께서 돌아오셔서 바쁘실 것 같아서—

위 예문⑰은 ‘周萍’, ‘周冲’ 형제와 어머니 ‘周蘩漪’ 간의 대화이다. ‘讓’ 사동구문을 살펴보면, 사동주는 동생인 ‘周冲’이고, 피사동주는 형 ‘周萍’으로, 형제 사이에 ‘讓’을 사용하였다.

- ⑱ 魯四鳳: 嗯, 我要是叫你來, 我的窗上一定有個紅燈, 要是沒有燈, 那你千萬不要來。(《雷雨》)  
응, 내 창가에 빨간 등을 켜 놓으면 와도 되지만, 만약에 등이 없으면 절대로 오지 마세요.  
周萍: 不要來?  
오지 말라고?

위 예문⑱에서 연인 관계인 ‘魯四鳳’과 ‘周萍’은 상호간에 ‘叫’를 사용하였다.<sup>15)</sup>

15) ‘魯四鳳’과 ‘周萍’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周萍’은 ‘四鳳’이 식모 일을 하는 주인집의 아들인 동시에 그녀의 연인이기도 하다. 고용주와 고

이를 통해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가 대등한 동등 관계의 사람들 상호간에는 ‘ㅁ’와 ‘讓’의 적용에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권세 차이가 없는 수평 관계에 있는 상호간에는 명령어기가 강한 ‘ㅁ’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명령어기가 약한 ‘讓’을 사용할 수도 있다.<sup>16)</sup> 명령어나 지시의 어기를 띤 ‘ㅁ’를 사용한다고 해서 공손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이 동등 관계에 속하며, 이 외에도 직급이 비슷한 동료 사이,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 등이 이에 포함된다.

## V. 사용 규칙의 다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讓’을,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ㅁ’를 선택하는 것이 공손표현 관점에서의 일반적인 사용 규칙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인 문학작품을 보면 대화참여자 상호 간에 이러한 규칙에 위배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보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상대방에게 ‘讓’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은 상대방에게 ‘ㅁ’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讓」과 ‘ㅁ’

---

용인이라는 상하 관계와 연인 사이라는 동등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ㅁ’를 사용한 것은 상하관계의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16) 이와 같이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에는 선택상의 제약 없이 ‘讓’과 ‘ㅁ’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적용 규칙이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칙이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 학력, 교양, 문화 수준, 계층 등에 따라 그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등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讓’을, 하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ㅁ’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 수 있다. 거리감 면에서는 서로 가까운 사이는 ‘ㅁ’를, 그렇지 않은 사이는 ‘讓’을 쓰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위 예(17)의 경우, 형제 사이는 거리감 면에서 매우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ㅁ’를 사용하지 않고 ‘讓’을 사용하였다. 극중에서 ‘周萍’과 ‘周冲’은 이복형제 관계인데, 이것이 이복형제라는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장치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체적인 담화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은 우연이라기보다 어떤 특수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목적을 지닌 의도적인 표현이다.

의 선택에 따른 공손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손 규칙에 위배되는 표현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변이 양상을 살펴 화용, 사회적 맥락에서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규칙을 위배하는 선택을 지배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친근도’와 ‘사회 계층’ 두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sup>17)</sup>

### 1. 친근도

⑱ 方太太: 又上哪兒瘋去啦? 大鳳兒呢?

또 어딜 그렇게 쪼다닌 거야? 大鳳兒은?

方珍珠: 她在後邊呢, 就回來。王老師, 看! (示以書)

금방 올게예요. 왕선생님, 보세요! (책을 보여주며)

王 力: (使眼色)先教媽媽看。

(눈짓을 하며)먼저 엄마에게 보여드려.

方珍珠: 媽! 您看, 書, 紙本, 毛筆。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책과 공책, 붓이에요.

(《方珍珠》)

위 예문⑱에서 피사동주인 엄마에게 ‘教’를 사용하였다. 상하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教’를 사용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한 표현으로, 일반적인 규칙에 위배되는 적용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教’를 쓰는 경우가 많다.

⑳ 二春: 趙大爺, 您說。您年年發癩子, 您知道。

조씨 어르신, 해마다 학질에 걸리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

17) 본 연구는 제한적인 코퍼스의 한계로 인해 사용상의 변이 요인을 친밀도와 사회 계층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 계층, 집단, 지역, 연령, 학력 등 다양한 요인이 이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 보세요.

大媽: 你教大爺歇歇吧, 他病病歪歪的!  
 我明白你的小心眼裏都憋著什麼壞呢!  
 애야, 어른신 좀 쉬시게 해라.  
 네가 무슨 꿈꿨이로 그러는지 알겠구나.

(《龍須溝》)

위의 예문⑳에서 사동주 ‘二春’은 피사동주 ‘趙大爺’에게 ‘教’를 사용했다. 권세 면에서 연하자가 연장자에게 ‘教’를 선택하는 것은 규칙에 위배된다. 이 예문의 대화참여자들은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보살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근한 이웃관계다. 연장자와 연하자라는 권세 요인보다는 상호간의 유대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권세 요인을 고려한다면 ‘二春’은 윗사람인 ‘조씨영감님’에게 ‘讓’을 사용해야 하지만, 상호간 친밀도가 높은 이웃 사이여서 ‘教’를 사용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예문㉑의 경우를 보면, ‘魯四鳳’과 ‘周萍’은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상하관계와 연인 사이인 동등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갈등하는 복잡 미묘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상호간에 ‘叫’를 사용하여 연인 사이인 동등 관계의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호간의 친밀도가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권세 차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사회 계층

- ㉑ “要是這麼著呀,” 曹先生遲疑不決的說, “除非我這兒可以將就你們。你一個人占一間房, 你們倆也占一間房; 住的地方可以不發生問題。不知道她會洗洗作作的不會, 假若她能作些事呢, 就讓她幫助高媽; 太太不久就要生小孩, 高媽一個人也太忙點。”  
 “그렇기만 하다면야……” 조(曹)선생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자네들이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으니. 자네 혼자 방 한 칸을 쓰거나

둘이 한 칸을 쓰거나 마찬가지로 그러저럭 거처에는 별 문제가 없을 터이니 그녀가 부엌일을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괜찮게 해내면 고마를 돕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부인이 이제 곧 아이를 낳을 테고, 고마 혼자로서는 일손이 부족할 테니까.”

(《駱駝祥子》)

㉔ “不過, 這我可不能完全作主, 得跟太太商議商議!”

“沒錯! 太太要不放心, 我把她帶來, 教太太看看!”

“那也好, ”曹先生也笑了, 沒想到祥子還能有這麼個心眼。

“그런데 이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 집사람과 상의해 봐야 해.” “그렇죠. 주인마님께서 안심이 안 되신다면 제가 그녀를 데려와서 마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겠군.” 조선생 역시 웃었다. 상자가 이런 눈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駱駝祥子》)

위의 예문(㉔~㉕)은 주인공 상자(祥子)와 그가 전세 인력거꾼으로 일했던 옛 주인 조(曹)선생의 대화 내용이다. 소설 속에서 조(曹)선생은 학식과 온화한 인품을 겸비한 인물로 묘사된다. 예㉔에서 조(曹)선생은 자신에게 고용된 인력거꾼인 ‘祥子’가 아내로 맞고 싶어 하는 ‘小福子’에게 ‘叫’를 사용하지 않고 ‘讓’을 사용하였다. 반면, ‘祥子’는 조(曹)선생의 부인인 주인마님에게 ‘讓’을 사용하지 않고 ‘教’를 사용하였다. 상하관계의 측면에서 두 경우 모두 일반적인 적용 규칙에 위배되는 선택을 하였다. 이처럼 ‘상자’와 ‘조선생’의 상반되는 선택은 사회 계층에 따라 언어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戴慶廈(2004)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는 두 계층의 언어 사용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18)</sup>

아래 표는 ‘讓’과 ‘叫’가 출현한 횟수를 작품별로 조사한 내용이다.<sup>19)</sup>

18) 戴慶廈, 《社會語言學概論》, 49-50쪽 참조.

19) 일반적으로 대화 맥락에서 대화참여자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에 상호간 대화로 이루어진 老舍의 희곡작품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lt;표 1&gt; ‘讓’, ‘叫(教)’의 출현빈도

텍스트제목	讓	叫(教)
1. 茶 館	1	3
2. 面子問題	0	31
3. 龍 須 溝	4	13
4. 方 珍 珠	5	20
5. 女 店 員	0	8
6. 全 家 福	1	9
총 수	11	84
점유율	11/95	84/95
빈도	11.6%	88.4%

老舍는 작품을 통해 주로 인력거꾼, 장사꾼, 민간 예인, 변변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 등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하층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위 <표 1>을 살펴보면, ‘讓’에 비해 ‘叫(教)’의 출현 횟수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학력이 낮은, 또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회 계층의 언어 습관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 VI. 나오기

지금까지 공손성의 관점에서 ‘讓’구문과 ‘叫’구문을 살펴보았다. 동일한 사동형식과 사동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혹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 어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叫’는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어기가 강경한 반면, 허락의 의미를 지닌 ‘讓’은 어기가 완곡한 편이다. 따라서 대화참여자(화자와 청자 또는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상호 관계에 따라 ‘叫’와 ‘讓’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 지위 및 연령을 근거로 하여 상하관계와 동등관계로 나누어 그 적용

상의 특징을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위 및 연령 면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다소 강압적인 명령의 어기를 지닌 ‘叫’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연상자는 연하자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장관은 부하 직원에게 ‘叫’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둘째,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叫’를 사용할 수 없다. 강압적인 명령의 어기를 띠게 되어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연하자는 연상자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讓’을 선택하여 사동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셋째, 지위와 연령이 대등한 상호 간에는 ‘叫’와 ‘讓’의 선택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친구나 연인 사이, 형제자매 사이, 직위가 비슷한 동료 사이는 ‘叫’를 사용하기도 하고, ‘讓’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화용상에서는 이 규칙에 위배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친근도’와 ‘사회 계층’이 사용상의 변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한적인 코퍼스의 분석에 의거한 논의라 본고에서 제시한 사용 규칙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중국어 교육에 활용되고, 앞으로 중국어 공손표현에 관한 논의가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

#### <參考文獻>

- 김윤경, <現代漢語使動句研究>, 《중국어언어연구》 5, 1997.  
 김윤정, <현대중국어 사동구문 비교 분석 연구>, 《中語中文學》 42, 2008.  
 김정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62, 2010.  
 김현철·김민영, <현대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58,

2009.

- 묘연창, <使動意義的一些同義詞對比分析>, 《中國語文學》 17, 1990.
- \_\_\_\_\_, <‘叫’構文的意味論的分析>, 《中國語文學》 43, 2004.
- \_\_\_\_\_, <‘讓’검어문의 V<sub>2</sub>/V<sub>2</sub>C의 의미적 특징>, 《中國文學》 58, 2009.
- \_\_\_\_\_, <“讓”과 목적복문>, 《中語中文學》 37, 2005.
- 박미정, <현대 중국어의 사동 구문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8, 2001.
- 박연옥·박동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사동문 대조 연구>, 《언어와 문화》 4-3, 2008.
- 박정구 역, 《중국어화용론》, 신성출판사, 2005.
- 오현주, <老舍作品禮貌語言研究>, 북경사범대학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문장 범주 완곡 표현 방식>, 《中國語文學》 56, 2010.
- 이성범 외, 《화용론 연구》, 태학사, 2002.
- 이성범 역(Mey, J. L. 지음), 《화용론 개관》, 한신문화사, 2007.
- 전혜영, <한국어 공손표현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5, 2004.
- 曹冬雪, <讓字句의 語義特征>,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31-4, 2009.
- 陳松岑, 《禮貌語言》, 商務印書館, 1989.
- 陳原, 《社會語言學》, 商務印書館, 2000.
- 戴慶廈, 《社會語言學概論》, 商務印書館, 2004.
- 丁聲樹等,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2004.
- 何自然·陳新仁, 《當代語用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2.
- 劉豔春, 《語言交際概論》, 北京大學出版社, 2007.
- 宛新政, <試論現代漢語使動句的句法、語義和語用特征>,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1, 2005.
- 姚肖鶯, <漢語三種致使句的致使性等級考察>, 北京語言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05.
- 張樹錚, <淺談禮貌語言>, 《語文建設》 11, 1991.
- 張豔玲·曉義, 《當代漢語語用學》, 湖北人民出版社, 2009.

- 張豫峰, <關於現代漢語致使態的思考>, 《漢語學習》 6, 2007.
-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 Morgan, 1975.
- Lakoff, R.(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中文提要>

本文以表使動義的‘讓’字句和‘叫’字句為研究對象，從禮貌的角度對其進行描寫分析，試圖找出其選用規則和變異使用的因素。本文主要探討的內容是：第一，對‘讓’和‘叫’的使動意義作了進一步思考；第二，以語料中所出現的‘讓’字句和‘叫’字句為例，從交際雙方地位和年齡的角度分為上下(權勢)關係和平等關係，分析了選擇上的規律和特點；第三，找出違背使用規則的變異用例，從語用和社會語言學的角度對引起變異現象的一些因素進行分析。

주제어 : 讓字句, 叫字句, 禮貌, 權勢關係, 使用規則

